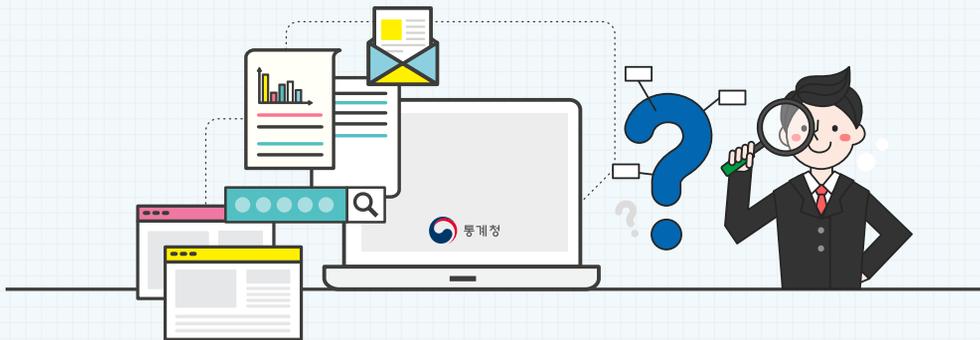


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분류를 기초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7종의 표준분류(통계법 제22조의 규정)를 비롯하여 총 33종의 통계분류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국내·외 통계분류의 개발 및 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통계분류 수요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유엔 및 국제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 관련기관의 동향, 그리고 관련 기고문 등 다양한 내용이 통계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계분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계분류 뉴스레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동 뉴스레터에 분류와 관련된 기고문 게재를 희망하거나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042) 481-2566, 25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 2호 [통권 17호] 통계분류 뉴스레터

C·O·N·T·E·N·T·S



1. 2018년 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

2.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3. 정보통신기술(ICT) 직업특수분류 개정

4. 제3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5. 2018년 WHO-FIC 연례회의 결과

6. 알쏭달쏭 분류사례

7. 2019년 상반기 주요 일정

1. 2018년 산업특수분류 개정 결과

2017년 7월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년만에 개정·시행되었고, 관련 후속작업으로 산업특수분류 19종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수분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19종의 특수분류 중 폐지 1종, 통합 1종, 개정 15종 등으로 추진되었다.

세부적인 개정 유형별로는 자동차 전용부품 제조업 특수분류가 폐지되었으며, 환경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해양수산업·재난안전산업(방재산업 통합) 특수분류 등은 분류체계가 변경되었고, 물류산업·사회서비스산업·소방산업·이러닝산업·지식재산서비스산업 등 11종의 특수분류는 연계표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개정 추진 연도별로는 2017년에 환경산업·물류산업·사회서비스산업등 8종이 개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해양수산업·재난안전산업 등 9종에 대한 개정작업이 실시되었다.

2018년에 분류체계를 개정한 특수분류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는 KSIC 제10차 개정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기타 반도체 소자·표시장치·PCB 등을 세분화였고, OECD 정보경제측정지침(MIE)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도 신설하였다.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는 해양 및 수산 분야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수산업 특수분류를 해양수산업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개별 특수분류로 운영하던 재난안전산업과 방재산업의 특수분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안전관리 유형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통합형 분류체계로 구성하였다.

2019년에는 로봇산업 및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개정작업과 더불어, 신성장 산업 부문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부문 등을 대상으로 특수분류 신설 수요를 파악·반영하는 등 보다 현실적합성 높은 경제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통계 생산 및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연도별 산업 특수분류 개정 주요결과 】

연도	개정 내용	특수분류 명	종수
2017년	분류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 	1종
	연계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 사회서비스산업 ■ 소방산업 ■ 재난안전산업 ■ 이터닝산업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6종
	분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관련 전용부품 제조업 	1종
2018년	분류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ICT)산업 ■ 해양수산업 ■ 재난안전산업(방재산업 통합) 	3종
	연계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 디자인산업 ■ 저작권산업 ■ 에너지산업 ■ 스포츠산업 ■ 공간정보산업 	6종
2019년 (예정)	분류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산업 ■ 콘텐츠산업 	2종

2.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블록체인기술 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활용을 위해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개발하여 2018년 7월에 고시하고 동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개발은 국내·외 사례 검토 등 기초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분류 코드·정의·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류 초안·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단계별로 관련 부문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업무협의회, 통계작성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특징을 소개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정보통신업 대분류(J) 중 3개 중분류(58, 62, 63)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과 함께 ICT 연관 기술산업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괄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등 10개 하위 부문 체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는 2018년 중 블록체인산업 현황조사(과기부), 서비스업조사 부가조사(통계청)에서 우선 적용되어 국가 기본통계 생산

과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정식 승인통계로 전환됨과 함께 기타 통계 조사에서도 활용 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분류체계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정부 부처에서도 각종 정책 개발·집행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KSIC 소분류별 블록체인기술산업 세부 분류체계 】

분류코드	분류 명칭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3. 정보통신기술(ICT) 직업특수분류 개정

통계청은 고용직업분류, 정보통신기술(ICT)직업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 분류의 3종을 직업특수분류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개정에 연동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직업특수분류를 개정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직업분류는 정보통신 및 장치 생산과 이들의 유지, 보수 및 기능에 관하여 관리 및 연구, 조언하거나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분류로 2000년에 제정되어 2007년,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3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7차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ICT직업 관련 항목을 재분류하였는데 범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등 정보통신 기술 관련 직업의 세분 및 신설 내용이 반영되었다.

OECD 정보사회측정지침(MIS,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ICT산업 특수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정보 통신 관련 상품 대여원'을 삭제하였고,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을 '정보 통신 관련 주변기기 설치 및 수리원'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ICT직업분류의 포괄범위는 표준분류로 작성된 통계청 ICT직업분류를 기본 분류로 하되, ICT핵심직업 부문(대분류 1, 2)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세부직업 분류와 연계하여 직업특수분류로서 ICT직업분류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별도 작성 되어 운영되고 있던 ICT 관련 유사분류를 표준화하였다.

통계청은 정보통신기술(ICT) 직업특수분류 제3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 및 이용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ICT인력수급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개정된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관련 통계의 시의성 및 비교성을 높였다.

또한 ICT직업분류가 관련 통계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결과와 연계표를 통계분류포털에 서비스함으로써 통일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4. 제3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통계청은 2015년 국제표준분류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를 준수하고, 국내 범죄 통계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6년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한국범죄분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분류 및 범죄통계와 관련된 작성기관, 이용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범죄분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 4개년 계획 】



【 ICCS 분류체계(대분류) 】

코드	대분류명
01	사망 관련 행위
02	해악을 가하거나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03	성 범죄
04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05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 침해 행위
06	규제 항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 관련 행위
07	사기, 기만 또는 부패 관련 행위
08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규범 위반 행위
09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행위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1	기타 범죄행위

금년에는 그 세 번째로 경찰학, 범죄학 분야 연구중심 학회인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대분류(01, 07, 08)에 대한 국제범죄분류 기반 범죄통계를 직접 시산·분석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범죄통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발전적 내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 연구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범죄통계와 범죄분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5. 2018년 WHO-FIC 연례회의 결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WHO-FIC은 보건분류(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IC)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연례회의를 통해 3대 국제보건분류¹⁾의 업데이트와 개발, 운영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2일부터 서울에서 약 6일간 'Better Health inform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 40 Years After Alma Ata'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총 55개국 422명이 참석하였다.

【 2019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 엠블럼 】



통계청은 보건분류 주무부처로 매년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국내 의견을 국제보건분류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보건분류 연구성과(3건)와 더불어 지난 66년간 보건분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3대 보건분류의 공동사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1건)을 포스터로 제출하는 등 국제보건분류 작성과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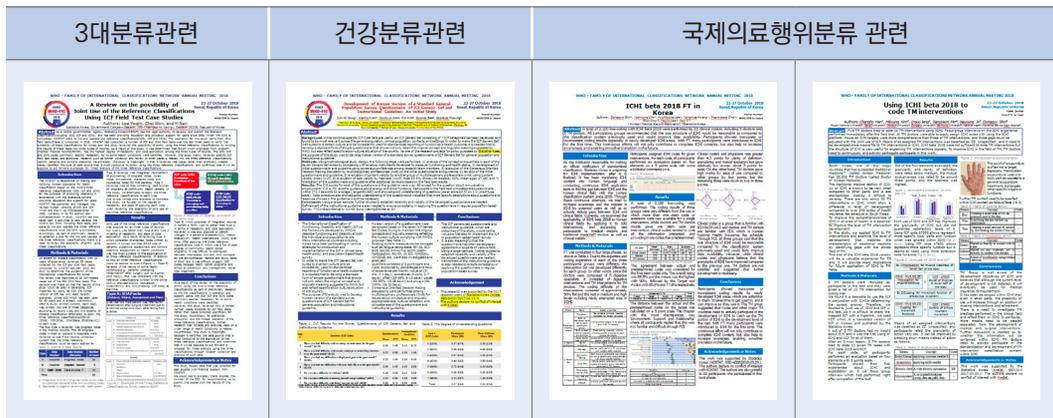
1) 국제질병사인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의료행위분류(IC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또한, 통계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위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현실을 국제보건분류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19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 제출 포스터 】



주요 회의 내용

- **(WHO)** 제출의견 요건강화 및 위원회 간 교차검토 절차 마련 등 WHO 위원회 신규 운영규정 및 업데이트 제출 의견 결정 절차 소개
- **(ICD)** ICD-11 도입 시 의료비정책, 코딩전문가 등 국가별 고려사항 논의
- **(ICD)** 주요 코딩방법 소개와 지침서 보안을 위해 각 국 ICD-11 현장시험 교육자료 공유 요청
- **(ICF)** ICF 분류 및 관련 자료의 질적양적 개선 논의
- **(ICF)** ICF-유소년판과 ICF 간 분류체계 충돌 해결을 위한 절차이행방안 논의
- **(ICHI)** 금년 1차시험 결과가 업데이트 된 최신판(Beta-2) 브라우저 및 Training Manual 등을 포함한 온라인 제공 콘텐츠 공유
- **(ICHI)** 2020년 세계보건총회(WHA) 승인 및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ICHI 개발 현황과 내년 사업 홍보 및 협조
- **(3대분류)** ICD-11에 국제일차의료분류(ICPC) 소개 및 지원 사항 등 논의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 중인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이하, ICD-11)와 국제의료행위분류(이하, ICHI) 세션에 참여하여 운영 규정, 도입 계획, 국제분류 업데이트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ICHI 개발과 관련된 387건의 의견을 제안하여 340건(반영률 87.9%)이 채택되었고,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이하, ICF) 업데이트에 대한 국내의 견을 반영하는 등 국제보건분류 개발과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ICF 세션에서는 ICF 분류 및 관련 자료의 질적·양적 개선과 분류체계 충돌 해결 과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ICF는 평가도구 및 다국어 온라인 교육도구 개발 등 분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구 개발이 진행 중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활용 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례회의 중 분류체계발전위원회(FDC) 공동의장인 Andrea Martinuzzi(이탈리아) 과의 면담을 통해 통계청에서 11월에 개최한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에 초청하였으며, 분야별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대 보건분류 공동 사용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ICHI 개발그룹의 공동의장인 Richard Madden(호주)과 Lyn Hanmer(남아공) 와의 면담을 통해 올해 국제분류개발 과정에서 통계청의 기여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내년 WHO-FIC에서 수행 예정인 ICHI 개발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ICHI 개발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최하는 연례회의와 연중회의는 국가별 자국의 의견을 국제 보건기구에 반영하는 한편 국제 동향을 수집하여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 이다. 통계청은 2019년 연례회의(캐나다), 분류체계발전위원회 연중회의(쿠웨이트), 국제의료행위분류 개발 연중회의(독일) 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보건분류 주무부처 로서 국제분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6. 알쏭달쏭 분류사례

1. 산업분류



Q1. 주방가구 제조업체가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활동의 산업분류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품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주방 가구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서 부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 설치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건설업'으로 분류합니다.

Q2. 연료 전지, 바이오매스(생물 연료)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의 산업분류는?

-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5119 기타 발전업'으로 분류합니다.

■ 바이오매스(생물 연료)의 열분해, 발효 등 화학반응 과정 등을 통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5119 기타 발전업'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우드칩, 목재펠릿 등을 이용한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35113 화력 발전업'으로 분류합니다.

II. 직업분류



Q1. 아파트관리소장의 직업분류는?

-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관리 규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므로 직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관리소장은 '13903 공동주택관리자'로 분류하나, 피관리인의 수가 적고 실무를 병행하는 관리소장은 '31271 총무 사무원'으로 분류합니다.

Q1. 주방장의 직업분류는?

- 음식점에서 메뉴를 개발하는 등 조리계획을 세우고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 음식점의 경영계획에 참여하고 음식조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28701 주방장'으로 분류합니다.
- 그러나 주된 직무가 음식조리이거나 음식조리 전담 인력이 소수인 음식점의 조리사, 또는 혼자서 주방을 책임지는 경우는 '441 조리사'이하 음식조리사로 분류합니다.

III. 질병분류



Q1. 계획된 동맥경유 화학색전술(TACE)만을 목적으로 입원한 암 환자에게 동맥 경유 화학색전술의 시행과정 중 하나인 색전술의 시행여부에 따라 주진단에 대한 질병분류부호의 적용이 달라지는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부호적용 원칙상 악성 신생물(암)의 병태로 화학요법을 위해 내원/입원한 환자에게 화학요법만 시행되었다면, 'Z51.1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주진단 부호로 분류하고, 악성 신생물은 기타진단으로 분류됩니다.
- 또한 전문자료에 따르면, 동맥경유 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은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한 후, 해당 혈관을 막아(색전술 시행) 종양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항암제에 의해 종양조직이 괴사되도록 하는 항암화학요법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을 막지 않고 항암제만 직접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동맥경유 화학색전술의 과정 중 하나인 색전술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인 동맥경유 화학색전술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해당 처치 후 퇴원한 경우라면, 'Z51.1 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의 부호를 주진단으로, 동맥경유 화학색전술을 필요로 했던 진단된 악성 신생물은 기타진단의 부호가 적용됩니다.

7. 2019년 상반기 주요 일정

산업분류팀



월	주요 일정
1월	• 한국 재화 및 서비스 분류(KCPC), 재화 및 서비스 용도분류(BEC) 개정 시행
2월	• 한국표준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COICOP-K)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3월	• COICOP-K 개정분류 잠정안 및 연계표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 실시 (통계교육원)
4월	• 경제·사회 특수분류 관련 통계작성기관 수요 조사 실시
5월	• COICOP-K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회의 상정
6월	• COICOP-K 통계작성기관 최종 의견수렴 • 한국 재화 및 서비스 분류(KCPC) 개정 해설서 발간

사회분류팀



월	주요 일정
1월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작업반 구성 및 연구용역 계획(안) 수립
2월	• 국가승인통계 분류적용 현황 파악
3월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4월	• 한국표준교육분류 이행 지원
5월	• UNSD 국제통계분류 전문가 회의 참석 • 한국표준직업분류 교육 실시 (통계교육원)

보건분류팀



월	주요 일정
1월~2월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의견수렴 - (대상) 정부기관, 학회 및 협회, 일반인
2월	• 2019년 보건분류 정책연구사업 발주 의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연구
3월	• 2019년 보건분류 자문위원회 구성
4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이해(초급) 교육 실시